

KOTRA 국가정보

스리랑카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면적	62,705 km ² (자료원 :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간보고서, 2019 기준)
수도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Sri Jayawardenepura Kotte)
인구	21,803,000 명 (자료원 :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간보고서, 2019 기준)
민족(인종)	Sinhalese(74.9%), Sri Lankan Tamils(11.2%), Indian Tamils(4.2%), Moors(Muslim 9.2%), 기타 (0.5%)
언어	싱할라 및 타밀어
종교	불교(70.1%), 힌두(12.6%), 이슬람(9.7%), 기독교(7.4%)
기후	열대 몬순기후, 고온다습(연평균 콜롬보 기온 27°)
국가원수	○ 대통령: Gotabaya Rajapaksa (SLPP) (* 2019년 11월 취임) ○ 수상: Mahinda Rajapaksa (SLPP)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73-11-14 (자료원 : 외교통상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협정	1978-01-20	항공관련 내용	
문화협정	1978-01-20	문화관련 내용	
투자보장협정	1980-07-15	투자보장 관련 내용	
무역협정	1984-10-08	무역관련 내용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약	1986-06-20	이중과세 및 무역관련 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91-02-08	경제협력기금관련 내용	
과학기술협력협정	1994-06-24	과학기술협력관련 내용	

<자료원 : 외교통상부>

한국교민 수

1,000 명 (자료원 : 외교통상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스리랑카와는 1973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공식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스리랑카의 위기 때마다(2004년 쓰나미 사태, 2009년 내전 난민 발생) 한국은 그 누구보다 먼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믿음직한 우방의 역할을 해왔다. 전 대통령 라자팍사는 국무총리 시절 한국을 2번 방문한 경험이 있고, 양 정부는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2017년에는 3월 15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11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스리랑카를 방문하였으며 11월 28~30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2019년 11월 16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전 스리랑카 대통령이자 자신의 친형인 마힌다 라자팍사를 수상으로 임명하며 사실상 형제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중앙집권 방식을 기반으로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며 친화적이면서도 비동맹 외교 정책으로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한다. 현재는 한국과의 관계에 특별한 변화나 영향을 줄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한국은 1990년대 말까지 봉제산업 위주로, 스리랑카의 최대 투자국이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국들이 의류 쿼터제를 시행하면서 스리랑카 의류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았음은 물론 우리 기업들도 수익성 악화에 따라 봉제분야 제조업체들이 많이 철수한 상태이다.

양국교역 현황은 한국은 완제품을, 스리랑카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보완적 교역관계 형성하고 있고 ('19년 수출 2.35억 불, 수입 1억 불, 교역대상국 81위), 최근 3년간 스리랑카로의 수출은 중국산 제품 수입확대로 지속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한국의 원부자재 수요 증가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스리랑카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이 자유로운 반면, 외환통제, 경직적 노동법, 열악한 부품산업, 시장협소, 고관세 등이 걸림돌이며, 1980년부터 ~ 2019년 12월까지 한국 기업의 스리랑카 직접투자 누계 금액은 1.84억 달러 이고, 주요 투자분야는 사회기반시설(60%), 제조, 통신 분야이다.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와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현지 관광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2020년 3월 24일 ~5월 11일의 7주간의 24시간 전면 통행금지로 필수재를 제외한 공장 가동까지 중단하게 되어 의류업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가 침체되었다. ADB(아시아개발은행)은 2020년 스리랑카 경제 성장률을 -5.5%로 전망하였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4월 16일~7월 15일까지 필수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비필수재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4월 9일~7월 8일까지는 L/C거래 및 비즈니스 목적의 외화송금을 제한한다는 조치가 취해져 수입이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조치의 목적은 정부가 외화가 부족하여 달러화에 대한 스리랑카 루피의 통화가치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음에 대비하고 외화유출을 제한하고자 함이었다. T/T를 받지 않고 오직 L/C (평균 90~180일자로 개설)만 받게되면서 많은 수출 기업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재국 정부는 수입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이참에 수입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내수 생산을 늘리자는게 정부의 바람이다.

앞으로의 투자 유망 분야로는 제조업(의약품/ 기능성 의류/ 식품 공정), 인프라, IT, 교육, 물류, 농업의 현대화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문화

2004년 6월 1일 고용허가제인 한국-스리랑카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3만 명의 스리랑카 국민이 한국에 입국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근로자는 3,40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스리랑카 국민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에 참여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한국어 시험(TOPIK)에 2015년에만 3만여 명이 응시할 정도로 수요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취업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서도 스리랑카인에 대한 채용 쿼터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스리랑카 국민이 한국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인과 동등한 일을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다른 중동국가 등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도 불교문화가 정착돼 있어 문화적 친근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점 역시 한국 취업 선호의 또 다른 이유이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4.49	3.42	3.21	2.72	-
명목GDP (십억\$)	82.39	88.01	88.9	86.57	-
1인당 GDP (PPP, \$)	12,343.78	12,860.16	13,443.44	13,897.27	-
1인당 명목 GDP (\$)	3,885.76	4,104.33	4,099.12	3,946.59	-
정부부채 (% of GDP)	79.02	77.38	83.28	82.97	-
물가상승률 (%)	3.99	6.58	4.27	4.1	-
실업률 (%)	4.4	4.4	4.4	4.4	-
수출액 (백만\$)	10,309.74	11,360.15	11,888.49	11,775.26	-
수입액 (백만\$)	19,182.84	20,979.8	22,232.79	19,495.04	-
무역수지 (백만\$)	-8,873.1	-9,619.65	-10,344.3	-7,719.78	-
외환 보유고 (백만\$)	5,222.21	7,066.25	6,131.27	6,720.28	7,622.22
이자율 (%)	-	-	-	-	-
환율 (자국통화)	145.58	152.45	162.46	178.74	185.06

〈자료원 : IMF, 스리랑카 관세청〉

경제 동향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이 종결되면서 전후복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8%를 넘었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매년 4-5%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국내 제조기반이 취약하여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는 오히려 수입 수요 증가로 연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요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시리세나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 정부 관련 부정부패 조사가 실시되어, 한동안 프로젝트가 잠시 중단되는 등 경제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4%대로 감소하였지만, 공

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각 5.5%, 5.3% 증가하기도 했었다.

2016년에는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업활동이 위축되고 수력공급도 차질을 빚었지만, 서비스 분야 등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4.4%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2017년 약 6,000여개 제품에 대한 EU GSP Plus 지위를 (2010년 상실 후)재획득 하였다. 2018년 싱가포르-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SLSFTA)을 체결 하였고, 2019년도에는 4월에 있었던 부활절 자살폭탄 테러사건으로 관광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11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로 많은 정부 프로젝트들이 대기 상태에 머물면서 GDP 성장률은 2.3%에 그쳤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정부는 수출 지향적 경제를 도모하고 있으며, 제조업 및 산업기반을 공공부문 주도형에서 민간부문 주도형으로 변화하여 내수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관광업을 선두로 한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 성장 모델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던 건설업과 스리랑카의 최대 수출품인 식품, 섬유 제조 또한 변함없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투자진흥청(BOI)은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제조 공정 유치와 IT 소프트웨어 내수 개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고기능성 의류 제조 공정 유치/ 식품 내수 가공 설비 유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 시스템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와는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는 FTA 협상을 몇년째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체결 소식은 없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자, 쌀, 양파 등의 농산물에는 관세를 높게 책정하는 편이고, 정부 및 민간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건설 부문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 친중정책을 펼친 이전 정부들에 대해 중국 투자의 높은 이자율과 불투명한 재정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많았던 만큼, 현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과 합리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외 지향적 정책으로 인도와의 관계 개선 및 서방국가로 부터의 다양한 투자 유치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기초여건을 탄탄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노력중이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더 이상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바(국가 부채가 총 GDP의 약 80%를 차지함), FTA 체결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비전 2025'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청 및 개발전략국제통상부를 중심으로 투자 유망분야를 발굴함과 동시에, 수출품목 및 대상국가 다변화 정책 등을 입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동향: 2020년 7월부터 IMF는 스리랑카의 국가 분류를 중저소득국(Lower-middle-income economy)로 변경하였다.

- (GDP) 해외 노동자의 對스리랑카 송금감소, 2개월간 제조업(특히 의류)수출 중단, 관광산업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 ADB(아시아 개발은행) : 2018년 +3.2%, 2019년 +2.3%, 2020년 예상 -5.5%, 2021년 예상 +4.1%

- (환율) 2020년 6월 23일 달러대비 루피화 평균환율은 전년대비 2.7% 절하되었다.

* 달러 대비 루피화 평균환율 (스리랑카중앙은행) : ('18)△16.4%→('19)+0.6%→('20.6)△2.7%

- (신용등급) 국제 신용평가사 2개사에서 최근 신용등급 B에서 B-로 하향되었다.

* (신용평가기관) 등급(5월말기준) : (Moody's) B2(유지), (S&P) B-, (Fitch) B-

- (고용) IMF의 스리랑카의 실업률 지표는 2019년도 4.8%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심하게 (drastically)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무역) 스리랑카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20년 수출입은 수출 약 134억 달러, 수입 160억 달러로 마감될 것이라 예상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20%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 감소, 수출 증가 정책).

경제 전망

스리랑카는 오랜 기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제조업 발전이 아직은 부진하다. 따라서 차, 섬유 등의 전통적인 수출분야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오랜기간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 의존 현상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도, 중국과의 틈새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들을 타깃으로 해 경제개발을 리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스리랑카는 2019년 론리플래닛에서 제1의 여행국가로 선정됐을 정도로 서구시장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관광산업 인프라가 아직은 개발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자연 속 그대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포지셔닝 되고 있어 당분간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깃 분야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산되면서도 현 정부의 강력한 '내수성장'에 대한 의지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로' 수출경제를 리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아 환율 변동성이 높아졌고 2017년 부터 시작된 달러에 대한 루피화의 평가절하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개도국의 특성상 정치적인 이슈들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변동성이 경제성장 추세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선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소국 경제이다보니 현지에서 실제 벌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외부에서 바라보고 인식하는 리스크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은 당분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년도 스리랑카 경제전망은 현재 COVID-19 사태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비재, 중간재, 투자재의 양이 감소할 것이며,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 침체는 스리랑카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운송, 관광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해외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외화 송금액이 감소할 것이며, 11월에 국회가 새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제 변동이 있었다.

전 시리세나 대통령과 위크라마싱하 총리가 발간한 경제발전전략 '비전 2025'에 따르면, 향후 스리랑카는 2025년까지 △지식 기반의 △경쟁력 높은 △사회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로 개혁하여 '인도양의 허브'로 발돋움함으로써, 상위중소득(Upper Middle Income) 국가로 진입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며,

※ 사회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보장하는, 잘 기능하고 규율된 시장경제를 의미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3년간 △1인당 국민소득 5천미불 달성, △새로운 일자리 1백만개 창출, △연간 수출액을 현재의 2배인 200억 미불로 증가, △해외 직접투자(FDI)를 연간 50억미불로 증가 등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정책을 이행해나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주요 제약요인으로 △과도한 공공 부채, △수출상품과 시장의 다양성 부족, △요소시장에서의 제약, △지적재산권 부문의 취약성, △사회경제 인프라 부족, △제한된 자본 접근성, △가격왜곡 등이 존재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는 상기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가 △민간부문 육성 및 성장 동력 강화, △지식 집약적이고 기술 주도형의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 증진, △중산층 육성, △제도적 개혁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810,220,024
2	영국	1,045,080,369
3	인도	753,480,912
4	독일	509,880,920
5	이탈리아	428,848,170
6	벨기에	338,186,910
7	아랍에미리트	292,867,262
8	중화인민공화국	215,492,802
9	네덜란드	208,333,909
10	일본	203,818,791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920,209,333
2	영국	1,043,181,953
3	인도	789,585,428
4	독일	547,124,314
5	이탈리아	531,645,986
6	중화인민공화국	430,444,019
7	벨기에	347,478,487
8	아랍에미리트	301,178,130
9	터키	234,955,187

10	싱가포르	233,668,700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732,067,408
2	인도	1,147,893,409
3	독일	833,084,486
4	영국	771,528,106
5	이탈리아	497,680,860
6	프랑스	387,834,587
7	벨기에	382,403,017
8	중화인민공화국	304,843,926
9	네덜란드	247,834,589
10	아랍에미리트	177,271,350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803,871,236
2	인도	858,346,461
3	독일	839,899,102
4	영국	793,286,685
5	이탈리아	463,042,210
6	벨기에	387,841,749
7	네덜란드	298,059,136
8	프랑스	189,886,259
9	스위스	174,131,175
10	러시아	157,492,974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270,755,901
2	인도	3,824,967,967
3	아랍에미리트	1,067,272,652
4	싱가포르	1,030,315,726
5	일본	949,828,607
6	말레이시아	642,030,245
7	미국	539,986,507
8	타이	514,463,334
9	Other Asia, nes	495,928,768
10	홍콩	465,914,475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인도	4,494,063,788
2	중화인민공화국	4,189,424,810
3	아랍에미리트	1,563,890,091
4	싱가포르	1,292,075,957
5	일본	1,038,077,127
6	미국	813,614,303
7	말레이시아	641,099,344
8	타이	518,321,787
9	Other Asia, nes	481,842,947
10	홍콩	438,954,058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인도	4,292,760,747
2	중화인민공화국	4,251,324,656
3	싱가포르	1,702,449,583
4	일본	1,186,584,243

5	아랍에미리트	910,227,810
6	말레이시아	679,972,660
7	홍콩	513,796,507
8	독일	405,476,978
9	Other Asia, nes	395,654,086
10	영국	385,002,950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인도	4,058,196,565
2	싱가포르	1,128,603,331
3	말레이시아	808,517,002
4	일본	593,730,452
5	홍콩	475,161,960
6	미국	379,345,923
7	타이	352,050,297
8	영국	338,320,195
9	독일	338,263,246
10	인도네시아	297,720,344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644,097,941
2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63,867,541
3	621210	브래지어	559,026,328
4	401290	기타	318,962,503

5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98,926,594
6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46,527,759
7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22,823,827
8	610821	면으로 만든 것	222,769,694
9	611120	면으로 만든 것	188,860,428
10	620520	면으로 만든 것	185,912,68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815,416,003
2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647,449,911
3	621210	브래지어	589,273,950
4	401290	기타	329,073,654
5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92,192,240
6	271019	기타	276,367,912
7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76,363,838
8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32,599,698
9	610821	면으로 만든 것	220,556,370
10	090611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198,210,867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621210	브래지어	591,675,748
2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96,900,719
3	401290	기타	350,409,985
4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95,019,860
5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79,355,846

6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09,581,793
7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202,866,436
8	620462	면으로 만든 것	197,038,197
9	610821	면으로 만든 것	191,424,030
10	61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8,671,44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621210	브래지어	543,798,837
2	401290	기타	326,220,394
3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301,819,999
4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42,420,283
5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209,240,103
6	610821	면으로 만든 것	198,829,098
7	610711	면으로 만든 것	196,715,800
8	620462	면으로 만든 것	196,047,805
9	710391	루비 · 사파이어 · 에메랄드	179,265,343
10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1,915,196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999,019,39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88,601,576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50,446,369
4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74,804,301
5	300490	기타	374,032,064
6	600690	기타	344,422,883
7	252329	기타	344,417,803

8	170199	기타	317,912,710
9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265,833,238
1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41,857,061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463,308,478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49,835,127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27,092,754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02,845,533
5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55,454,314
6	300490	기타	354,205,050
7	252329	기타	347,941,082
8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318,605,764
9	600690	기타	317,506,502
10	100199	기타	301,996,875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353,742,764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40,891,570
3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52,053,882
4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393,977,494
5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1,719,492
6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330,604,330
7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305,105,281

8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62,736,458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33,032,272
10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231,142,17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116,675,131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30,438,545
3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70,722,550
4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질은 함유하지 않은 것	204,674,084
5	300490	기타	190,504,600
6	100199	기타	189,273,685
7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182,160,099
8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181,553,570
9	890120	탱커(tanker)	168,099,834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60,152,232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276	89	187
2017	287	84	203
2018	282	88	194
2019	235	100	135
2020	133	97	3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134	아연도강판	11	0	10
2	2150	합성고무	16	0	15
3	2140	합성수지	10	0	10
4	4360	편직물	23	0	22
5	1336	윤활유	10	0	9
6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9	0	8
7	4342	폴리에스터직물	14	0	13
8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13	0	13
9	4229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4	0	3
1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4	0	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6134	아연도강판	11	0	11
2	2150	합성고무	9	0	9
3	2140	합성수지	9	0	9
4	4360	편직물	9	0	9
5	1336	윤활유	8	0	8
6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6	0	6
7	4342	폴리에스터직물	6	0	6
8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3	0	3
9	4229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3	0	3
1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3	0	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4411	편직제의류	0	26	-27
2	1334	나프타	0	0	0
3	4412	직물제의류	1	21	-20
4	0149	기타식물성재료	0	9	-10
5	4414	의류 액세서리	0	5	-6
6	1290	기타비금속광물	1	5	-5
7	4413	혁의류 및 기타	0	6	-6
8	3203	타이어	1	3	-2
9	4490	기타섬유제품	0	3	-3
10	3209	기타고무제품	0	2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4411	편직제의류	0	23	-23
2	1334	나프타	0	16	-16
3	4412	직물제의류	0	14	-14
4	0149	기타식물성재료	0	10	-10

5	4414	의류 악세서리	0	6	-6
6	1290	기타비금속광물	0	5	-5
7	4413	혁의류 및 기타	0	5	-5
8	3203	타이어	1	2	-1
9	4490	기타섬유제품	0	2	-2
10	3209	기타고무제품	0	2	-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	------	------	------	----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ISFTA)	인도	1998-12-28	2000-03-01	○ 원산지 기준 규정: 수입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원부자재 FOB 가격 기준 최저 35%의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한 완제품으로서, 원부자재와 완제품 간 HS Code 첫 4자리가 달라야 한다. 다만, 수입원부자재의 10% 이상을 인도(스리랑카)에서 수입해 완제품 생산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국내 부가가치를 최소 25% 이상만 창출하면 된다. 아울러 충분한 공정(sufficient process)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상품이어야 한다. ○ 현황: 스리랑카의 차, 향신료 및 의류 수출이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인도보다 기계화된 의류 제조산업을 통해 스리랑카 의류제품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해 인도의 의류 제조산업을 위협시키기도 했다. 양국의 주력 산업 보호를 위해 교역 제한품목을 선정했는데 스리랑카는 농업, 가축, 고무, 제지, 철강, 기계류, 전기제품 등이고 인도는 의류, 플라스틱, 고무 등이다. FTA 체결 후 인도 정부에서 스리랑카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들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스리랑카 수출 제품의 관세 우위가 상당히 약화돼 수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자동차 조립공장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어 부품 생산 및 공급 기지로서 스리랑카가 투자 적격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IT분야에서는 스리랑카 국민의 영어 구사능력이 우수해 인도의 BPO 보완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17년 기준 스리랑카는 주로 농업 및 가축, 술, 플라스틱, 고무 종이류, 양말, 세라믹과 일부 전자기기를 포함한 약 1,200개의 제품이 Negative list(관세불인정 리스트)에 등재돼있다. 인도의 Negative list 품목은 음료, 고무, 플라스틱, 및 바닥재를 포함한 198개의 HS 항목이 확인된다.
------------------------	----	------------	------------	---

파키스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PSFTA)	파키스탄	2005-06-12	2005-07-12	
스리랑카-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2018-01-23	2018-05-01	2016년 7월 협상이 개시된 지 약 1년 반 만에 스리랑카와 싱가포르 간 FTA가 체결되었다.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자상거래,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사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15년간 싱가포르는 스리랑카에 대해 수출품목의 80%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2007-10-26	2008-01-01	1976년에 방콕협정으로 발효된 것으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동 협정의 목적은 원산지규정 도입, 관세 및 비관세 제거를 통해 ESCAP 내 개도국의 무역 확대, 회원국 간에 특정 품목에 대해 양허관세를 실시 중이며 회원국별 자국의 양허관세 품목 및 양허관세율을 결정하고 최빈국에 대해서는 특별 양허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로써 최빈국에만 추가 제공되는 587개를 제외하고 총 4,270개의 품목이 관세 혜택을 받게 됐으며, 스리랑카의 주 수출품은 고무, 코코넛, 차 등이 있다. 더불어 스리랑카 자국 주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는 향신료, 세라믹, 과일류 등 약 25가지가 있다. 2017년 태국 방콕에서 4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각료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017년도에 시작될 서비스, 투자 무역촉진 등에 관련한 종합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4,270개 품목에 관련한 양허관세가 이루어졌던 3차 각료회의에 비해, 4차 각료회의는 10,700개 품목에 관한 양허관세가 논의됐다.

〈자료원 : Department of Commerce〉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중국-스리랑카 FTA	중국	중국-스리랑카 FTA는 스리랑카 내 FDI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함을 주요 골자로 할 예정이다. 스리랑카는 2013년 상반기 FDI 금액은 전년 대비 약 20% 상승한 5억 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인프라 구축, 제조업, 서비스업 및 농업 순이다. 또한, 스리랑카 투자청은 프로젝트 온라인 신청 시스템 등 FDI 증가를 위한 관련 시스템 개발과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1월 스리랑카에서 개최됐던 영연방정상회담(CHOGM)에서 논의를 하는 등 2014년 중으로 중국-스리랑카 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스리랑카 투자청이 발표했었으나, 협의 사항이 많고 2015년 스리랑카 내 대선 및 총선을 통한 정권 교체 때문에 FTA 체결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새롭게 선출된 시리세나 대통령이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FTA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와 더불어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및 관광 유치 등을 통한 동반 성장 목표를 공유했다. 2016년 8월과 11월에 각각 콜롬보 및 베이징에서 열린 FTA 회의에서 두 나라는 무역기반, 각 국간 기술적 무역 장벽, 서비스 무역, 투자, 협력 및 경제기술 협력 등의 긍정적인 토의를 거쳤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 16~19일 두 나라는 콜롬보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거쳤다. 이전과 비슷한 항목에 관해 논의했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협상을 2021년에 재개할 예정이다.	

〈자료원 : Department of Commerce〉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스리랑카는 수출입통제부(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를 통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제한품목(restricted items)과 금지품목(prohibited items)으로 나누어지며, 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관련 규정은 Sri Lanka Customs Ordinance의 Schedule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ny Picture, Logo, Symbol, Trade Mark, goods or any other kind that contain insult to any religious leader, religious followers or religious teaching in any form is prohibited to import.
- Any kind of printed document that contains insult or let down any religious leaders teaching or religious leader and followers are prohibited to import.
- Any kind of weapon, bombs, bullets and anything that generate dangerous gas
- Cigarettes, Tobacco and any Tobacco mix products (need special permission to bring cigarettes to Sri Lanka)
- Illegally printed books
- Fire crackers that deemed to be dangerous (determine by the Sri Lanka Customs)
- Notes and promissory notes that are printed on fabric or any other object
- Any kind of weapon or toy gun or any object or good that can convert in to deadly weapon.
- Eggs that have no country of origin.
- Any food or food related products that is damage, rotten,gives bad smell or legally not good for human or animal consumption.
- Any type of phonographic related goods.
- Japanese brushes use for shaving
- Lottery tickets, tickets circulars
- Meat that cannot clearly identify the animal or animal parts that cannot be clearly identify , part that not taken for edible purpose and left over parts of the animal
 - Meat parts that not taken for edible purpose
 - Meat with animal head on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스리랑카 표준원(SLSI: Sri Lanka Standard Institute)은 스리랑카 국가표준기관으로 1965년에 설립됐으며 관련법은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Act of 1984이다.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스리랑카도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채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품질관리 및 보증에 관한 ISO 9,000시리즈 표준, 환경관리시스템인 ISO 14000 표준, 식품안전관리기준 HACCP 보증, GMP(Good Management Practices Certificate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50001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표준 및 품질관리) 관리규정 2001은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 10일 해당 품목에서 붉은 편두, 백설탕, 흑설탕이 제외되고 2016년 2월 11일 HS Code 84.81(탭 코크 밸브)가 포함돼 총 121개가 있다. 이들 제품 수입 시 품질 및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수입검사 스킴(IIS: Import Inspection Scheme)을 받아야 한다.

수입상은 수출국 실험기관(스리랑카 표준원이 인정한 기관, 또는 공인된 증명기관)이 발급한 규정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인증서는 스리랑카가 규정한 표준에 부합됨을 인증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Act No.1에 의거한 수입품 검사 제도에 관한 기술 규정은 관보(Gazette notification No. 1844/9 of 08 January 2014)를 참고하면 된다.

스리랑카 인증제도는 스리랑카 부합성 평가를 위한 스리랑카 인증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증 위원회(Sri Lanka Accreditation Board)는 스리랑카 국가인증기관으로 2005년에 설립됐는데, 근거법은 Act 32 Of 2005이며 주요 수행업무는 부합성 평가에 관계된 검사시험소, 의료실험실의 인증, 검사, 공인하는 것이다.

동식물, 씨앗, 생피 등의 수입은 특별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출국의 검역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입 전 수입허가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 수입허가서에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 방법(인증서)을 명시해 준다.

TBT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 관련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수입표준 및 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으로 122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 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참고로,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일 농축액,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속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스리랑카는 시장 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더욱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관세율 폭은 0% 무관세에서부터 최대 1,225%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약 96% 이상이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관세체계는 2012년의 HS 품목분류표(HS2012)에 근거하고 있는데, 8자리 기준 6,965개로서, 2007년의 HS 품목분류표(HS2007)에 근거한 2010년 관세체계에 비해 373개가 많아졌다.

실행 관세는 지난해 기준 10.3%로 2010년 11.5%에서 근소하게 감소했다. 무관세(0%)가 약 50%로서 제일 많고, 30% 관세가 약 23%로 그다음이며, 15% 관세는 약 20%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업 분야의 평균관세(24%)가 산업 분야의 평균관세(7.5%)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 높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만들고 있고,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 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를 통해 관세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 타결로 양허 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확대되어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 1) 스리랑카 관세청으로 접속한다 : www.customs.gov.lk
- 2) 상단 메뉴에서 "Business"의 "Tariff Changes"를 클릭한다.
- 3) Tariff Changes 페이지 상단의 진한 분홍색 바탕의 "Customs Tariff 2020 on 19/03/2020"을 클릭한다.
- 4) HS Code 별로 해당 Chapter를 찾아서 관세율을 확인한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수출입업자 등록은 먼저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사업자 등록을 해 납세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고, 다음으로 세관에 수출입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납세번호를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http://www.ird.gov.lk/en/Downloads/SitePages/Forms.aspx?menuid=1603>)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스리랑카 관세청의 수입담당 부서는 콜롬보 항의 해상화물과 콜롬보국제공항(Bandaranaike International Airport)의 항공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뉜다.

수입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명된 세관신고서(CUSDEC: a Completed Customs Declaration)를 기타 수입 관련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품 종류에 따라 세관신고서 제출 전에 허가 및 증명서 등이 필요하기도 하고 스리랑카 세관은 특정 수입화물의 반출에 앞서 수입허가품목의 경우 관련 정부기관(Import and Export Control Department, Sri Lanka Standard Institution, Health Department 등)으로부터 필요한 수입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내 차(tea)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리랑카 차 위원회(The Ceylon Tea Board)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수입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 관련 서류는 케이스별로 다르나 대체로 Delivery Order, Bill of Lading, Exchange Document,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있다.

통과 화물(보세지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수입돼 재수출되는 화물)에는 제반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아울러 선적 전 검사 제도도 없다.

EAN(International Article Number System) Numbering System은 상품 코드의 약칭으로 일종의 국제 무역 용어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101개의 기관이 가입돼 있다. 스리랑카에는 EAN Sri Lanka에서 EAN Bar Code 번호를 할당 부여하고 있다. 한편, Uniform Product Code(UPC)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특별 코드 시스템으로서 스리랑카 무역업체가 필요한 경우 EAN 스리랑카에 요청하면 된다.

기타 일반수입품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통관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이삿짐, 샘플 등 소량을 해상 운송 시 세관통관(Custom's Clearance)은 개인이나 일반업체가 아닌 관세사가 있는 세관에 등록된 운송업체가 해야 한다. 아울러 Demurrage 비용(수입품의 정박 초과료)이 일수에 따라 아주 급격한 누진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마찰로 인해 통관검사가 늦어져 과다한 정박 초과료가 발생하곤 한다. 이 정박 초과료를 누가 부담할지는 또 다른 분쟁 거리가 된다.

통관 시 유의사항

통관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특히 BOI 관리기업들 중 BOI가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산업단지까지 컨테이너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 직원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한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해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현지 투자기업들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공장까지 곧바로 들여오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들여온 후, 세관의 입회하에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관행은 통관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참고로, EMS로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령 주소지까지 현지 EMS 업체에서 배달토록 되어 있지만, 통관상의 필요성으

로 인해 물품이 다소 클 경우에는 EMS 픽업센터로 직접 가서 세관 담당자의 간단한 확인 하에 통관을 시키고(필요 시 관세 지불) 물품을 픽업하는 경우들이 있다.

◦ 통관에 대한 FAQ 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ustoms.gov.lk/import/home>

◦ 기타 문의사항은:

Sri Lanka Customs
Information Center
+94 1121434343
8.00am to 4.30 pm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Lanka Shipping &Logistics (Pvt) Ltd

주소	Lanka Shipping Tower, 99, St. Michael's Road, Colombo 3, Sri Lanka
전화번호	+94 11 468 1700
이메일	patali@lankaship.lk
홈페이지	http://www.lankaship.lk

◦ Cargo Boat Company Limited

주소	66 Vivekananda Hill, Colombo 0013, Sri Lanka
전화번호	+94 11 742 2240(-2)
이메일	inam@cargo-boat.com
홈페이지	http://www.cargo-boat.com

◦ Advantis Freight (Pvt) Ltd

주소	400 Ven Baddegama Wimalawans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
전화번호	+94 11 2167764
홈페이지	https://advantis.world/freight/about-advantis-freight
비고	2019년 하반기 부터 콜롬보 무역관의 협력 물류사로 지정되었음.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주변 국가의 부러움을 받으며 필리핀, 미얀마 등과 함께 아시아의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그러나 1971년과 1989년, 2차례에 걸친 공산 반군의 준동과 1983년부터 시작된 26년간의 내전, 그리고 2004년 12월에 덮친 쓰나미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빈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 국가 중 중간 정도의 위치는 유지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HDI)는 188개 대상국 중에서 73위를 기록해 고도개발지수국(High Human Development) 범주에 포함됐다.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헌법에 투자보호 조항(157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모체가 되는 투자법(Law No.4 of 1978, 일명 BOI Act라고도 함)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투자법은 1980년, 1983년, 1992년, 2002년, 2009년, 2012년에 수정됐으며, 이 모법을 근거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1977년부터 제조업 분야의 육성, 수출증대, 기술개발, 고용 증대 등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전환했다. 스리랑카 투자환경은 '100% 외국인 단독 투자 허용, 설비재, 원부자재의 수입 관세 면제, 법인세 면세기간, 기업 이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투자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스리랑카 헌법은 외국과 체결한 쌍무투자협정은 투자보호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157조에 명시하고 있다.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스리랑카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2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은 BOI법이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는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10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이다.

- 투자 보장 협정국(28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 이중과세 방지 협정국(44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UAE,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프랑스, 독일 등
- 인도-스리랑카 FTA : 4,233개 품목 무관세, CEPA는 2016년 7월 기준 양국 간 협상 중
- 스리랑카-파키스탄 FTA : 4,680개 품목 무관세
- EU GSP + : 7,200개 품목 무관세

또한, 스리랑카 투자청(BOI)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투자 유치 분야로는 수출 기반 제조업, 수출 기반 서비스업, 관광업 및 관광업 연계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 고학력 및 고도기술 개발, 전략적 부가가치 프로젝트, 농업(농업, 수산업 관련 산업, 낙농업), 산업부동산(Industrial Estate), 특수경제 지역(Special Economic Zones), 지식도시(Knowledge Cities) 등이 있다.

투자인센티브

2008년 이후 정부 재정적자 확대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에 대한 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 투자환경은 좋은 편이다. 특히 2012년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대폭 낮추는 한편, 조세 감면 폭을 높이는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2014년도에도 최소 투자금액을 낮추는 등 부분 개편이 있었으며, 2016년부터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와 같은 새로운 투자 방법의 활성화 및 토지 소유의 개혁, 자유화를 추진하여 2020년인 지금도 개발중에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 이익배당의 자유, 자유로운 주식양도 및 면세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입이나 임차가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2개 종류(BOI법 17조에 따른 우대조치, BOI법 16조에 의한 통상 국내법상의 우대조치)가 있으며, 기업은 이들 중 어느 한쪽의 우대조치 수혜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투자분야, 고용, 투자지역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법인세 면세(Tax Holiday)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와 서남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 간의 FTA가 2000년부터 발효됐으며, 인도시장으로 수출 시 4,233개 품목이 무관세 대상품목이다. 그러나 '13년 7월 CEPA 체결이 수포가 되면서 CEPA가 체결될 경우 무관세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들었다.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우회진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스리랑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인도-스리랑카 FTA의 무역확대 효과를 보면 2000년 3월 발효 이래 양국 간 무역은 크게 증가해 스리랑카의 대인도 수출 비중은 2000년 1% 미만에서 2017년에는 스리랑카 총수출의 6%를 차지했으며, 스리랑카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2000년에 8%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스리랑카 총수입의 약 21%를 기록했다.

인도시장을 겨냥한 투자일 경우 인도에 투자하는 것보다 스리랑카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노동인력이 우수하면서 온순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울러 콜롬보 항 및 함반토타 항을 인도 및 서남아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함반토타 항 배후지에 대단위 EPZ(Export Processing Zone)을 조성 및 보세구역 설정을 통해 조립산업을 육성, 인도 등 서남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려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금지 업종은 다음과 같다.

- Pawn broking
- Retail trade with a capital of less than One Million US Dollars
- Coastal Fishing

다음은 제한 업종으로서 외국인 지분은 40%까지만 가능하다.

- Production of goods where Sri Lanka's exports are subject to internationally determined quota restrictions
- Growing and primary processing of tea, rubber, coconut, cocoa, rice, sugar and spices
- Mining and primary processing of non renewable national resources
- Timber based industries using local timber
- Fishing (deep sea fishing)
- Mass communications
- Education
- Freight forwarding
- Travel agencies
- Shipping agencies

정부의 특별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Air transportation
- Coastal Shipping
- any industry manufacturing arms, ammunitions, explosives, military vehicles and equipment aircraft and other military hardware; any industry manufacturing poisons, narcotics, alcohols, dangerous drugs and toxic, hazardous or carcinogenic

materials; any industry producing currency, coins or security documents;

- Large scale mechanized mining of gems;
- Lotteries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스리랑카는 투자유치청(BOI)에 의해서 수출전용단지(EPZ: Export Processing Zone), 산업단지(IP: Industrial Park) 등을 전국적으로 약 20개 운영하고 있으며, 동 단지 내에서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비자발급에서부터 노무 문제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기본으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동 BOI 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investsrilanka.com/setting-up/where/>)

하단의 산업단지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전용공단이다.

산업단지

◦ Biyagama EPZ

규모	531.54에이커
위치	Gampaha와 콜롬보 공항 중간 지점에 위치
임차료	◦ Land Premium: US \$50,000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 Ground Rent: US\$ 4,235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 75.00 per Meter + Monthly Service Charge ◦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Meter 단, BOI에서 부과하는 경비 및 세전가격 기준임(세부내역은 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람)
관할기관 및 연락처	◦ Name: Ms. S. K. Boteju ◦ Designation: Director (Zone) ◦ Office: +94 11 2465212 ◦ Mobile: 비공개 ◦ E-Mail: 비공개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investsrilanka.com/location/biyagama-epz/

◦ Katunayake EPZ

규모	531에이커
위치	콜롬보 공항 근처(콜롬보와는 29km)
임차료	◦ Land Premium: US \$60,000 per acre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 Ground Rent: US \$4660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 75.00 per Cubic Meter + Monthly Service Charge ◦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Cubic Meter ◦ Solid Waste Disposal Charges: Rs. 605.00 per Metric Ton 단, BOI에서 부과하는 경비 및 세전가격 기준임(세부내역은 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람).

관할기관 및 연락처	○ Name: Sisil Fernando ○ Designation: Director (Zone) ○ Office: +94 112252362 ○ Mobile: +94 77 7986474 ○ E-Mail: fernandos@boi.lk
비고	기타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investsrilanka.com/location/katunayake-epz/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유치청(BOI)〉

주요 지역별 여건
없음.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679.66	897.05	1,372.72	1,614.04	758.19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52.99	236.81	71.79	67.86	77.36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9	4	1,024	6	974
2019	8	4	3,528	8	2,435
2020	5	1	1,350	7	1,48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건설업	4	1	550	2	550
도매 및 소매업	3	1	36	2	24
금융 및 보험업	1	0	238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2	200	2	4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202	1	202
제조업	1	0	800	0	0
건설업	2	0	2,000	4	1,900
도매 및 소매업	1	0	3	0	0
숙박 및 음식점업	1	1	73	1	73
부동산업	1	1	250	1	1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200	1	100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0	1	30
건설업	4	0	1,350	6	1,4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카니발월드코랑카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고무, 플라스틱
모기업명	한국카니발

○ 엘피스랑카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복
모기업명	이랜드월드

○ 세라믹월드

진출연도	198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도자기장식품

○ 구룡랑카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류용패딩

○ 형제코루게이티드랑카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박스(골판지)

○ 구상랑카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스포츠장갑

○ 에스에스랑카글러브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고무장갑

○ 영안랑카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모자
모기업명	(주)영안모자

○ 효성오앤비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유기질비료
모기업명	효성오앤비

○ 세라젬랑카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업
취급분야	의료용기기
모기업명	(주)세라젬

○ 스카이라인베이스볼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야구공
모기업명	스카이라인스포츠

○ 신우랑카

진출연도	198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라텍스완구

○ 코오롱글로벌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코오롱글로벌

○ 현대건설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현대건설

○ 경남기업

진출연도	1978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경남기업

○ 삼성전자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소매업
취급분야	삼성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대한항공콜롬보지점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대한항공항공서비스
모기업명	대한항공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 외국인 투자가는 스리랑카 투자청(BOI-Board of Investment Sri Lanka) 또는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또는 협상) 이외에 회사설립 신고만으로도 되는 분야일 경우에는 등기소(DRC)에 등록하는 절차만을 통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 스리랑카 투자청 관리대상 희망기업은 투자청과 협상을 통해 일정 기간 조세 감면 및 투자청으로부터의 행정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수출품 생산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이 해당한다.

◦ 취급분야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나 관련 부처와 직접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협상코자 할 경우이다. 주로 단일공사 프로젝트 추진 또는 PPP형 BOT 공사 추진 시 관련 부처의 경쟁입찰 수주나 수의계약을 통해 투자가 진행된다.

◦ 스리랑카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이나 유통서비스업 중 외국인투자 사전 승인 분야가 아닌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로서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 등기소를 방문해 회사 설립 신고절차만 거치면 된다.

◦ 법인 설립절차

- Registrar of Companies에서 같은 회사 이름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명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 회사의 정관(memorandum) 또는 인가서에 대한 공인된 사본과 함께 Form 44, Form 45, Form 46 을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다운로드 링크: http://www.drc.gov.lk/?page_id=1998)

◦ BOI(스리랑카 투자진흥청) 소속 투자기업의 경우, Section 16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소 투자 금액은 250,000달러이고, 스리랑카에서 수출을 할 경우의 최소 투자 금액은 5백만 달러이다. Section 17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소 투자 금액은 3백만 달러이고, Inland Revenue Act No 24 of 2017 조항에 따라 ECA(Enhanced Capital Allowances)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사

1) 지사(Overseas Company)

◦ 외국인 투자가의 스리랑카 내 지점(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및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설립 시 이를 통해 Overseas Company(Corporate Act 2007에 근거)로 칭한다.

- 요건만 구비하면 등기소(DRC)에 등록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2) 지점(Branch Office)

◦ 모기업 현지 사무소로서 지점 설립의 목적은 모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제고, 모기업의 전략에 따른 판매활동 전개 등 현지에서 영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지사와 현지법인 간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책임 소재에 관한 것으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법적 책임이 현지법인에 귀속되지만, 지점의 경우는 모기업에까지 그 책임소재가 있다.

- 지점의 업무 영역 중 영업활동(Commercial Trading & Industrial Activity)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5백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조사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는 최소자본금 납입의무가 없다.

-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의 영업분야가 소매업(Retail Trade)일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투자 금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유는 자본금 10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이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

상기 지점(Branch)의 업무 영역 중 영업활동(Commercial Trading & Industrial Activity)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형태로, 최소자본금 납입의무가 없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낙찰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동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수입 및 지출업무는 가능하다. 프로젝트 종료 시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입이 불필요하다.
- 최소 7명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최소 2인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한다.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참석자(의결권 보유기준)의 75% 이상이다.
-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이며 외국인 또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주식회사는 상장기업(Public Limited Company)의 경우 기업명 끝에 PLC로, 비상장 기업(Limited)의 경우 Ltd.로 표기한다.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설립 시 주식회사와 같이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납입이 불필요하다.
- 최소 2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의 투자자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 1명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한다.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Share)을 공개 모집(Public Subscription)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금이 개인(Private hands)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책임한계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아울러 출자금 공개모집을 원할 경우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해 추진하면 된다.
- 1인 유한회사는 없다.
-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외국인 또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현지법인은 유한회사로 등록하고 있다.
- 유한회사는 기업명 끝에 (PVT) Ltd 또는 (Private) Limited로 표기한다.

개인사업자

회사 형태가 아닌 Proprietorship 형태를 취하는 영업 행위로 사업주에게 무한책임이 있고 외국인에게는 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D. L. & F. DE SARAM

전화번호	+94 11 2 695782
------	-----------------

주소	No.47, C.W.W. Kannangara Mw. (Alexandra Place), Colombo 7,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desaram.com
이메일	desaram@desaram.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Julius & Creasy

전화번호	+94 11 470 8300
주소	No. 41, Janadhipathi Mawatha, Colombo 1,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juliusandcreasy.com
이메일	juliusc@lankacom.ne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스리랑카에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우, 철수 및 청산 시 현지 기업과 동일하게 스리랑카 회사법(Companies Act No. 07 of 2007)의 적용을 받는다. 단, 투자법인의 청산은 투자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반면, 현지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차이점이다. 투자청에서는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해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투자조건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기에 청산 절차가 어렵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2) 자발적 청산과 법원 결정에 따른 청산

Winding up Rules of 1939에 따르면, 투자법인이 자발적으로 청산을 원할 경우,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적은 공문으로 BOI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부 등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위배사항이 있거나 청산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감사를 해 투자청에 보고한다. 이후, 문제가 없을 시 투자청의 철수 및 청산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노무 관련 사항은 EPF/ETF 법을 따르며 청산금을 송금하는 데에 필요한 승인절차는 없다.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법인 설립 후 1년 동안 비즈니스 활동이 없었을 경우, 1년 동안 활동을 중단한 경우, 법원에 따른 결정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 탄원서, 진출서, 청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청산인을 지명하게 된다.

3) 유의 사항

실제로 철수 및 청산 시 실무적인 문제에 자주 부딪히므로 투자 시작 시점부터 중요한 서류는 철저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 과거 투자법인 철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도 존재하는데, 몇 년 전 한국 업체가 정식 철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수해 현지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다.

또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무리하게 청산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업체가 활동기간 중 제공된 인센티브를 모두 환급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계약한 프로젝트 미완료 시에도 해당한다. 청산 시에는 종업원 정리해고수당 방정식에 따라 많은 수당을 예상해야 하며, 투자 기업에는 부담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산 시 과거의 모든 자료를 검토해 징수하기 때문에 오래된 서류도 모두 보관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약 185 스리랑카루피(2020년 10월 매매기준율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7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9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
비고	○ 대졸-사무직 및 고졸-생산직 관련 평균임금 통계가 없음. 상기 수치는 2016년 기준 스리랑카 월 소득 평균과 중간치 ○ 스리랑카는 최저임금이 월 단위로 되어 있으며 산업 분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 2019년 기준 12,500 스리랑카 루피(\$67.6) ○ 스리랑카 국가레벨의 수치고 콜롬보의 수치는 약 60~70% 차이가 있다.(콜롬보의 임금, 지출수준이 스리랑카 국가 전체대비 60~70% 높음)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업무영역, 근무시간, 임금, 교육 기간(필요 시), 수습 기간, 휴가, 공휴일, 사회 보장 등 고용 조건들을 명시한 문서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 노동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법정 최저 근로 연령은 18세이다. 법정 퇴직 연령은 55세이나 고용주의 전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 16~18세 사이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켜서는 안 되며, 밤 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시켜서는 안 된다.

공단지역의 경우 Job Bank를 통해 고용할 수도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문광고나 광고지 등을 통해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비교적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나 콜롬보에서 가까운 Katunayake EPZ, Biyagama EPZ 등 공장이 밀집한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를 구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방은 노동력 수급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항구나 공항까지의 교통, 숙련공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숙련공 확보가 쉽지 않다. 숙련공이나 젊은 인력들이 급여 수준이 높은 해외 근로자로 취업해 나가고 있어 봉제, 기타 어렵고 힘든 일자리는 구인난과 잦은 전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사무직원 구인은 보통 일요 신문(Sunday Observer 등)에 구인 광고를 내거나 콜롬보 대학 등 대학에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 중 구직 희망자 리스트를 보내주도록 의뢰하기도 한다. 스리랑카 정부가 노르웨이 정부의 무상원조를 받아 시작한 JobsNet에 구인회사들이 게시하면, 구직 희망자가 신청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대부분의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Permanent Full Time Workers)는 최장 근로시간, 최저 임금, 휴가, 노조결성권, 안전 및 건강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해고 관련 법(TEA: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of Workmen Act)'은 6개월 이상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는 사유 혹은 증빙서류가 확실한 근로 기강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해고(fire, 또는 lay off)가 어렵도록 규정돼 있다.

노사 및 해고 관련 노무분쟁은 법무부 산하 노동심판소(Labour Tribunal)에서 관장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 업무, 근로시간, 임금, 훈련(필요 시) 및 수습 기간, 휴가 및 휴일, 퇴직금 관련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

근로시간

공장 근로자의 경우 주당 45.5시간(월~금요일에는 8시간/일 및 토요일 5.5시간), 사무실 근로자의 경우 주당 45시간(월~금요일에는 8시간/일 및 토요일 5시간)이다. 기본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정상근무 8시간 + 휴식 1시간)이며 일 9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당 정상임금의 1.5배(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1.5~2배)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은 월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휴가

연차(Annual Leave)(유급)는 만 1년(12개월)을 근속한 경우 2년 차부터 14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고용된 첫해의 경우 1/4분기에 고용된 자는 14일, 2/4분기는 10일, 3/4분기는 7일, 4/4분기는 4일이 주어진다. 사용치 않은 연차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상호합의로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캐주얼휴가(Casual Holidays)(유급)는 근속 2년째부터 연 7일의 캐주얼 휴가를 준다(미사용된 캐주얼 휴가는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이 제도는 사무실 직원에만 적용된다. 병가(Sick or Medical Leave)(유급)는 100%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허가되는 휴가이다. 통상 최대 연간 21일이 주어지며 메디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출산 휴가(Maternity Leave)(유급)는 여성 고용인에게만 해당한다. 첫째, 둘째 아이의 분만 시는 12주(84일), 셋째 아이의 분만 시는 6주(42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 출산 휴가는 분만 14일 이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휴가 동안의 임금은 정상임금의 월 급여를 지급한다.

매달 Poya Day(Full Moon Day)는 유급 휴일이다. 그 외에 법정 공휴일(Mercantile Holidays)도 유급 휴일이다.

해고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사유(예: 비행, 사기, 준법질서 준수거부 등)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당할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재판소에 제소 가능하다.

해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예비심사(Preliminary Investigation) → 1차 경고(Warning) → 2차 경고(Show Cause) → 내부 조사(Domestic Inquiry) → 최종 징계(Final Action)의 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비심사는 관리자가 범칙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증인 및 관련 근로자의 서면진술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판단 시 경고가 정당하다고 할 때 서면 형태로 해야 한다. 해고된 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에 의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심판소(labour tribunal)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결도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최종 판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 혹은 인력의 잉여 상태임에도 정리 해고를 주저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 시 동료 간에 동정 파업을 일으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 분쟁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비 및 소송비, 위로금 지급 판결 등의 우려로 신중한 노무관리는 쉽지 않다.

징계 사유(예로 비행, 사기, 준법질서 준수 거부)가 있을 경우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하고, 시달서나 경고서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향후 노무 관계 발생 대비에 반드시 필요하다. 2005년 이후 해고 정리 기준을 돕기 위해 Termination Formula가 공시됐다. 아울러 정리해고의 경우 사전에 스리랑카 투자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적합성 여부를 허가받아야 한다.

국가가 제시하는 해고 방정식이 다소 높은 감은 있지만,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인 해고를 감행할 때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고용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불필요한 고용주, 고용인 간의 분쟁도 많이 줄었다. 한편, 정리해고 수당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 존치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다.

퇴직금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금은 퇴직하는 가장 가까운 달의 급여 총액 기준에 의해 1년당 1/2개월을 계산한다.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1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지만,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피고용자가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의견이다. 이는 노동법의 상/하위법 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럴 경우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법을 해석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스리랑카는 사회주의적인 요소와 영국식 제도의 잔재로 인해 개도국 여건에 비한다면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는 근로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과 근로자신탁기금(Employee's Trust Fund; ETF)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정부가 스리랑카 국민에 대해 100%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국립병원에 한함)하며, 산재보험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국립병원의 경우 오래 기다려야 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개인병원을 선호하는 추세이나, 개인병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료보험 제도는 없고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스리랑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외국인은 제외된다.

고용보험

- EPF(근로자공제기금, Employees' Provident Fund):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총 급여의 20%(종업원 부담 8%, 사용자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기금에 불입하는 것으로, 급여는 근무 초과수당을 제외한 임금과 수당을 포함한다.

- ETF(근로자신탁기금, Employee's Trust Fund):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까지의 총 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기금에 불입해야 된다. 근로자는 지급 의무가 없지만, 가입은 의무이며, 사용자는 지급 의무가 있고 가입도 의무적이다.

산재보험

노동자 보상법(Workman's Compensation Act)에 의거 고용주는 고용인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가입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고용인에 대한 보상은 고용주 책임이다. 스리랑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보험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민연금

상기 건강보험 참고 요망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법인들은 주류와 담배의 제조 및 유통(40%)을 제외하곤 28% 정상세율(2011년 4월부터 정상세율이 35%에서 28%로 조정)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BOI회사의 경우 투자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가 100% 면제(Tax Holiday), 10% 또는 15%의 특혜 법인세(Concessionary rate)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BOI와의 협상이 필요하다.

일반기업일 경우에도 관광, 수출 및 과세소득이 500만 루피(약 4만 6,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양허세율인 14%를 부담한다. 원래 동 양허세율은 외국인 지분이 25%를 넘지 않는 기업에 한정되도록 규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 외국인 지분이 25%를 넘지 않는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 있다.

개인소득세

모든 개인은 개인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연 소득 50만 스리랑카 루피 미만은 면제이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a sliding rate scale 계산방식에 의해 부과된다.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율과 면세구간이 역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 500,001~600,000 루피: 4%
- 600,001~1,200,000 루피: 8%
- 1,200,001~1,800,000 루피: 12%
- 1,800,001~2,400,000 루피: 16%
- 2,400,001~3,000,000 루피: 20%

그 이상의 소득에는 2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박, 술, 담배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40%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기존 매출액의 15%를 부과하던 VAT는 2019년 11월 1일 국회법 통과 후 8%로 적용됐다.

특별소비세

특정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CESS라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종량 혹은 종가세 방식으로 품목별로 1%에서 35%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품목별 확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ustoms.gov.lk/public/files/tariff/cess2018.pdf>

국가재건세(NBT)

기존에 NBT가 있었으나, 2019년 12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외환관리는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에 근거해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 외환관리국이 관할하고 있다

환율 결정은 관리 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에 의해 중앙은행의 환율변동 관리위원회(Managed Floating Committee)가 주요국 통화와 SDR을 감안해 매일 발표한다. 주요 교역상대국 6개국(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인도)의 물가 동향 및 화폐가치 변동과 자국의 물가동향 등을 감안해 상한 및 하한선을 결정한 후, 이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의 주요 공급 동향에 따라 매일 환율을 결정 발표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외환의 투기적인 요소가 감소해 환율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의 일일 환율 고시는 스리랑카 중앙은행 홈페이지(www.cbsl.gov.lk)에서 확인 가능하다.

외환 규제

BOI와 협약을 통해 일반외환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FCBU(Foreign Currency Banking Unit) 계좌를 통한 외화의 보유, 입금 송금이 보다 자유롭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해외송금 및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해외송금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만 맞을 경우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나, 건별로 요구조건이 복잡한 편이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들을 잘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배당금 규모별 송금 한도액 등이다.

외환거래는 공인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관련 외환통제 현황을 보면, 현금대출업, 전당포, 자본금 1백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에는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통화법(the Monetary Law)이 수정돼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회사문서들을 심사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규제 권한이 강화됐다.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스리랑카는 국제특허조약(PCT)의 회원국이며 PCT 국내 단계 진입 마감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스리랑카에 서의 특허 출원 이전에 출원인 또는 승계인이 해외에서 특허 출원에서 청구한 것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관한 특허를 해외에서 취득하지 않았다는 선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PCT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 또는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스리랑카 특허청장에게 현지 심사관을 지정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심사단계에서는 출원의 특허성 요건으로 신규성이 평가된다. 스리랑카에는 별도로 실용신안 제도가 없는데, 이는 영국 특허제도의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법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입법을 통해 스리랑카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식재산 관련 첫 번째 법령은 스리랑카에 적용되는 영국 발명가 법령이었으며 이 법령에 따라 1860년에 첫 번째 특허가 부여되었다. 1907년에 영국 특허법에 따라 특허 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허 조례는 1979년 지식재산법 제 52호가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였으나, 1979년 제정법 이후 폐지되었다. 1979년 지식재산법 제52호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모델 법률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2003년에는 1979년의 지식재산법 52호를 대체하여 2003년의 지식재산법 제36호가 발효되어 2003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스리랑카 1979년 지식재산법을 대체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조약 체결국으로 갖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리랑카의 법제는 각각의 지식재산권을 하나의 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법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및 저작권, 불공정 경쟁 및 미공개 정보,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재 스리랑카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중에서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협정,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및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베른 조약의 회원국이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한국의 중산층과 유사한 소비수준을 보이는 소비층은 전체 인구(2,144만 명)의 약 10~20% 정도로 추정된다. 참고로, 스리랑카의 평균 월 소득은 2016년 기준 62,237 루피(Rs.)이며 평균 월 지출은 같은 해 기준 54,999루피(Rs.)이다. <자료원 : Department of Statistics (2016년, 20년 기준 최신자료) >

소비 성향

고가품 및 고품질의 일반 소비제품과 기호식품 및 사치품은 일부 고소득층 및 외국인을 상대로 특정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높은 관세로 판매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 그러나 2009년경부터 구매 결정기준이 가격(저가 선호)에서 품질 위주로 점점 옮겨지고 있다. 지방 소비자들도 일반 상품보다는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소비성향이 프리미엄화 추세에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중고품 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가전제품, IT 제품 등의 경우 고장이 나도 수리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중고 PC와 재생타이어 수입시장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 제품의 경우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신흥도시 중산층을 모방한 소비행태가 확대되고 있는데, 소득수준은 이에 못 미치지만 스리랑카 주부들은 심정적으로 신흥중산층의 생활을 동경하고 중산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의류, 장식품, 자동차, 주택 인테리어, 가전제품, 외식 등에서 모방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상권의 중심인 콜롬보에는 현대식 슈퍼마켓 몇 개가 성업 중이며,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형 유통센터가 입점 중이나 아직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혹은 체류 외국인이 주요 고객이며,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은 일반 재래식 시장에서 식료품이나 일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매년 약 6,000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어 현지인들의 한국어, 한국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높다. 한국어능력평가인 TOPIK의 응시자가 수천 명에 달하며, 스리랑카인들은 제조업 종사를 희망하기 때문에 평균 성적도 높은 편이다.

2012년 한국드라마 '대장금'이 현지 대표 TV 채널을 통해 상영됐을 당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인기를 끌은 바 있으며, 다수의 한국 드라마가 공중파 TV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다. 또한 '별에서 온 그대'가 방영됐을 당시에는 방송국 근처 및 콜롬보 중심지에 위치한 큰 광고판에서 한국 배우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각종 드라마가 꾸준히 공중파 채널로 방영되고 있으며 현지에서 한국드라마에 대한 마니아가 있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괜찮은 편이지만 가격이 비싸서 선뜻 살 수 없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일본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한국제품을 고급품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스리랑카인들은 전반적으로 정서가 온순하며 다소 느린 감은 있으나 합리적인 일 처리가 관례화돼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거래 시 조급성을 띠면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도록 한다.

상거래에 앞서 현지 기업들을 조회하려고 하면, 상장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olombo Stock Exchange(CSE)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주식 브로커들도 상장기업들에 대한 기업평가를 외부에 발표하고 있다. Fitch Ratings는 은행 및 금융기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 및 재무정보, 지분관계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체 등록소의 등록사업체명 조회하는 방안을 활용해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바이어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참고로, Lanka Orix Factors Ltd(LOFAC)가 로컬 에이전트로 있는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정보회사인 Dun and Bradstreet(D&B)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스리랑카 상대방 기업정보가 필요하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요금은 통상 1개 기업 정보당 100달러 정도이다. 스리랑카 기업 중 D&B에 등록된 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대금결제와 관련해서는, 스리랑카 정부는 수입 시 L/C 거래를 권장하고 있다. L/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입대금의 10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L/C 개설을 위한 예치금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소액거래는 T/T 계약도 많이 하며, T/T 거래 시 계약 건당 지불한 도금액이 1만 달러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별도 계좌를 개설해 1만 달러 이상의 계약에 대해 T/T 결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후 주재국 정부의 외화 송금 제한 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T/T 방식으로 계약하기가 어려워 졌다.

스리랑카의 경우 시장규모가 작아서 계약 시 독점판매권을 얻고 싶어 하며, 독점판매 거래 시 계약 기간 및 세부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리랑카 국적자의 경우 한국업체의 초대장이 있어야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 한국 공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 및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중소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과세 표준액 4만 5천 달러 정도에서 세금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담 시 명함을 2~3개씩 건네는 바이어도 흔하며, 상담은 A사 바이어와 했는데 계약은 B사 이름으로 하는 것도 다반사이다. 이를 오해해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당 바이어의 기업구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된다.

한편, 수입 시 관세 등 세금, 경비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인보이스상 언더밸류(under value)가 일반화돼 있다. 특히 외국과의 외상거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바이어는 주의가 필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스리랑카 사람들의 성향상 대화 시 언성을 높인다든지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상담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생활에서도 싸우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순리대로 생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웃음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라 대하기가 편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료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다. 업무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들과 접할 경우, 불교국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불교 관련 사항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스리랑카의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 매우 좋아한다.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좋은 첫인상을 주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Presentation을 위해 노트북을 앞에 놓고 상담하는 경우 Presentation이 끝나면 바로 노트북은 접고 상대방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좋다.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혹은 자판을 두드리며 상대방 말을 듣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스리랑카와 한국 간 산업 및 기술 발달에 격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카탈로그만으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스리랑카 바이어에게 이해시키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샘플을 보여주거나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가격표는 CIF Colombo로 준비한다.

성공적인 상담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을 경우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통신 사정이 좋지 못해서 연락이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차 연락해 봐야 했지만, 요즘은 통신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이정도면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인의 성격상 여러 가지 조건이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제품과 미팅이었어도 일부러 상대방을 기다리게 한다든지 최종 결정 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스리랑카의 바이어와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스리랑카인 특성상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

한편, 상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대화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스리랑카인은 크리켓을 매우 좋아하며 스리랑카의 크리켓 수준은 인도, 호주 등과 더불어 세계 3~4강 이내에 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크리켓의 기본적인 규정과 게임방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쉽지는 않으나 스리랑카의 유명 크리켓 선수나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한 역사 등을 알아두어 대화 시 칭찬해주면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워진다.

- 종교는 불교가 대다수이다.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국교 자체가 불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화가 많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가 가장 사랑하는 페라헤라 불교축제(매년 8월)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승불교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화로 삼으면 좋다.

- 피해야 할 것은 450년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과 소득수준이 낮으며 다른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와 삶의 수준과 생활방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시 반드시 알아두고 시작해야 할 점은, 스리랑카가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0달러 정도이고 저중소득국가(Lower-Middle Income Country, 2020년 7월부터)라고 해서 스리랑카인들이 제품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거나 낮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큰 오산이라는 점이다. 해마다 많은 수의 스리랑카인들이 영국, 호주,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으며, 또한 한국을 포함한 두바이 등 스리랑카 보다 잘사는 나라로 몇 년간 일하러 떠나고 되돌아오는 스리랑카인들이 많으므로 이들은 잘사는 국가가 무엇인지, 그들의 선진 시스템과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첨단 기술이 장착된 제품은 무엇인지,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상과 매너 및 생활태도를 가졌는지 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어설픈 제품과 낮은 가격만 가지고 스리랑카와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면 실패한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대한항공

2013년 5월 대한항공은 스리랑카 콜롬보에 공식 취항을 하게 됐다. 시발점은 2012년 5월 Rajapaksa 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대한항공 취항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고, 이에 따른 취항 검토 작업이 시작됐다. KOTRA 콜롬보 무역관은 초기 검토 시점에서의 기초자료 및 스리랑카 현지의 경제동향, 사업환경, 투자기업 현황 등의 경제정보를 제공해 대한항공의 취항을 지원했다. 애초 대한항공 취항에 따른 사업성은 희박하다고 판명이 났으나, 무역관의 정보와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검토를 거듭한 결과 사업성 가능으로 판별이 났다.

대한항공의 스리랑카 취항 시 등록절차는 일반기업과 달리 현지 항공부를 통해 등록해야 했다. 콜롬보 무역관은 기존처럼 현지 투자청 등의 절차적 지원보다는 투자진출을 위한 시장성 측면의 지원활동을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스리랑카 콜롬보 항공 노선을 주 3회(월·수·토)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11월 27일 확인 시점으로 대한항공의 인천-스리랑카 직항 노선에 대한 일반 운행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2) 부산디핑/카니발월드

부산디핑은 스리랑카에 지난 1992년 진출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업체 중 하나이다. 저임 노동력과 천연 고무 공급력을 이유로 스리랑카로 투자하였으며, 자매 업체로 헬러윈 가면을 생산하는 카니발월드가 1990년에, 작업용 다목적 장갑을 생산하는 KOATED GLOVES가 2008년에 설립되었다.

지역적으로 바이어 접촉이 어려운 면이 있으나, 미국, 독일, 홍콩 등 주요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자체 브랜드 육성 및 OEM 다각화로 마케팅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주원료인 천연고무를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하여 고무 생산량이 적은 중국에 비해 원가경쟁력을 다소 누리고 있다. 관리직원을 대부분 현지화하여 현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 명을 현지인 체제로 전환하였다. 현지인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우수한 자체 설비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및 폐수처리 설비 등을 대부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08년 시작된 전 세계적 경기불황에 대응한 수출 다각화 전략으로 기존의 선호시장인 미국, 유럽에 그치지 않고 중동, 동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고급시장 및 대중시장에 다양한 품질의 풍선을 동시에 공급했다. 또한, 무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마케팅으로 직접 해외의 바이어들과 거래를 지속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출입국/비자

한국인들은 스리랑카 비자를 받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2년 1월 1일부터 스리랑카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On-Line Visa Service)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방문목적에 관계없이(Transit일 경우도 포함) ETA를 통해 사전에 비자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비자 수수료도 청구한다(단, 12세 이하 및 외교/ 공무 비자는 비자 수수료 없으나 사전에 비자 신청해야 함).

사정상 ETA 신청을 하지 않고 입국해야 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비자를 구매할 수 있다. On-Arrival로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광비자, 비즈니스 비자에 각각 수수료를 5달러, 10달러씩 추가 징수한다. 공항에서 입국절차 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On-line ETA 시스템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하는 것을 권한다.

스리랑카는 영주권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체류의 경우에는 매년 거주 비자(Residence Visa)를 이민청(Immigration Office)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 수수료는 2만 루피가 소요된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기체류 목적과 관련된 현지 관련 부처(산업부, 교육부, 외교부, 투자청 등)로부터 사전에 거주비자 발급 추천서를 받아 비자발급 신청서류와 함께 이민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체류비자(Residence Visa) 획득 제도

스리랑카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로컬기업의 외국인 채용 시, 외국인 투자기업의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Post)의 업무가 스리랑카인이 수행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가령, 스리랑카에 자회사 또는 지사로 투자 진출해 설립되는 경우 모기업(본사)으로부터 파견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파견되는 보직에 스리랑카인을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고, 모기업(본사) 없이 단독법인 설립(예: 교포 기업 등)의 경우에도 비스리랑카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직에 비스리랑카인을 꼭 채용해야만 하는 증빙이 필요하다.

스리랑카는 취업비자(Working Visa)가 없으므로 취업허가 시 체류 비자(Residence Visa)를 발급하는데 동 체류 비자에 체류 목적이 명기돼 있다. 스리랑카 취업비자(Residence Visa) 발급방법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진출 시 투자기업의 Share Holder(지분소유주)와 모기업으로부터의 파견직원 간 다소 다른 절차를 통해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투자기업의 Share Holder(지분소유주)는 투자신고를 위해 사전에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투자기업 등록 후 이민국에 Residence Visa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즉, 한 번 스리랑카에 입국 후 체류비자 획득을 위한 Entry Visa 발급을 위해 다시 모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기업으로부터의 파견직원은 해당국에 있는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Entry Visa를 받아야 하는 등 현지 기업이 외국인 채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즉, 회사 설립을 위해 스리랑카를 방문했어도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모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Entry Visa 신청절차부터 단계적으로 비자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체류비자(Residence Visa) 발급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2만 루피(약 17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장(長)에 한해 2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비자 발급비용은 2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현지 투자유치청(BOI)을 통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BOI에서 현지 비자 관련된 사항을 주선해주므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가 아닌 현지 사업체 등록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현지 이민 청 등을 통해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웹사이트 링크 참조 :

http://www.immigration.gov.lk/web/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1&Itemid=196&lang=en

○ (참고) 2020년 11월 30일 현재, 코로나 사태이후 스리랑카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특별허가를 제외하고 입국이 잠정 어려운 상태이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개인 용품으로 스리랑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휴대품이어야 하며 수량은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정도로 한정된다. 아울러, 해당 물품의 재반출이 도착 후 6개월 이내이면서 확실시될 때는 면세가 부여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표준 사이즈 기준으로 와인 2병, 1.5리터 양주, 1/4리터 이하의 물과 소량의 향수, 2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비상업용 기념품은 면세 반입이 허용된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94 11 269 9036 (-8)
주소	No. 98 Dhamapala Mawatha, Colombo 7, Sri Lanka
홈페이지	http://lka.mofa.go.kr

○ KOICA 스리랑카 사무소

전화번호	+94 11 266 7969
주소	KOREA ODA CENTER, NO.9/2, Dudley Senanayake Mawatha, Colombo 08,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 KEXIM 콜롬보 사무소

전화번호	+94 11 267 5355
주소	KOREA ODA CENTER, NO.9/2, Dudley Senanayake Mawatha, Colombo 08,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koreaexim.go.kr

○ 스리랑카 EPS 센터

전화번호	+94 11 288 6945
주소	171/4, 2nd Floor, Main Street, Battaramulla,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 KOPIA 스리랑카 센터

전화번호	+94 81 238 8375
주소	Horticulture Crops Research & Department of Agriculture, P.O.Box 11, Gannoruwa, Peradeniya, Sri Lanka
홈페이지	http://itcc.rda.go.kr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EDB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전화번호	+94 11 230 0705/11
주소	No.42, Nawan Mawatha, Colombo 2,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srilankabusiness.com
비고	스리랑카 수출진흥위원회

◦ BOI (Board of Investment)

전화번호	+94 11 242 7122
주소	West Tower, World Trade Centre, Echelone Square, Colombo,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investsrilanka.com
비고	스리랑카 투자유치청으로서 Korean Desk (내선 7122)로 연락 가능

◦ The Ceylon Chamber of Commerce

전화번호	+94 11 242 1745 (-7)
주소	50 Navam Mawatha, Colombo 2,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chamber.lk
비고	자국, 외국인 사업적 만남을 위한 중앙정부의 핵심 조직. 전문위원회, 제휴 조직, 비즈니스 상담 등의 업무 담당

◦ Sri Lanka Customs

전화번호	+94 11 222 1333
주소	No.40, Main Street, Colombo 11,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lk
비고	스리랑카 관세청으로서 주요 역할은 수입통관, 관세법 또는 이와 관련된 규칙이나 제재 관리

◦ Department of Commerce

전화번호	+94 11 232 9733
주소	No. 21, Vauxhall Street, Colombo 2,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doc.gov.lk

비고	정부 무역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스리랑카의 상호 무역 관계, 지역 간 또는 다자간 무역 관계를 개발, 진흥시키는 부서
----	---

◦ Daily News

전화번호	+94 11 242 9429
주소	No. 35, D.R.Wijewarden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dailynews.lk
비고	1918년 개간한 스리랑카의 국가적 신문

◦ Daily Mirror

전화번호	+94 11 533 5731
주소	No. 8, Hunupitiya Cross Road, Colombo 2,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dailymirror.lk/
비고	Wijeya Newspapers에 의해 발행되는 영자신문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85 스리랑카루피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7
2	식품	순두부찌개	1인분	6.5
3	식품	김치찌개	1인분	6.5
4	식품	신라면	1봉지	1.62
5	음료	커피(아메리카노)	1잔	2.2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1500ml	0.38
7	음료	스리랑카 맥주(마트, 이름: 라이언비어)	500ml	1.7
8	의료	병원진료비	내과/초진	15.47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12
10	교통	톡톡(삼륜차)	기본요금	0.37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24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남자)	1회	8.1
13	서비스	휴대전화(월표준)	1분	1.85
14	서비스	인터넷(ADSL)	1달	17.95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6.18
16	여가	담배 (골드리프, 20개)	1갑	6.19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9.9
18	임금	대출초임	법정최저	3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수업료	연간	13616.39
20	금리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70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 단위는 스리랑카 루피(Rupee)를 사용하며, 약칭은 루피이다. 통화로는 지폐 5,000, 2,000, 1,000, 500, 100, 50, 20, 10루피가 있고 동전으로는 10, 5, 2, 1루피가 있다.

환전방법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소 환율이 낮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호텔 등 에서도 환전할 수 있다. 유명 음식점이나 상점에서는 달러가 통용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호텔 이외 상점에서는 달러 사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 혹시 되더라도 환율이 높지 않다. 콜롬보 공항에 은행 환전소가 설치돼 있으므로 입국 직후 얼마간의 필요한 현금을 환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콜롬보 공항 환전소에서 인도 루피화는 취급하지 않는다.

출국 시 현지화를 달러화로 재환전할 경우 입국 시 환전한 은행 영수증이 꼭 필요하고, 호텔 등에서 환전한 영수증으로는 재환전이 불가능하므로 많은 금액을 환전할 경우 입국 시 은행에서 환전한 영수증은 꼭 보관하는 것이 좋다.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현지화를 달러화 현금으로 환전할 때는 항공권 구매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VISA 카드일 경우에는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American Express 카드일 경우에는 가맹점들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서, 카드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콜롬보 시내에는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6:00~18:00)에는 차량정체가 무척 심한 편이다. 아울러, 학생들 스쿨픽업 시간대(13:00~14:00) 학교 인근의 차량정체는 더욱 심해진다.

차선을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긴 하지만, 툭툭(삼륜차)과 오토바이들이 차선을 물고 운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다만, 교통경찰들이 항상 체크를 해서 교통신호는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다.

콜롬보 시내를 벗어나서는 도로 폭이 넓지 않다 보니 대형트럭이나 버스가 앞에서 서행이라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느린 속도로 달리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옆 차선을 넘나들면서 무단 질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지방 도로여건이 좋지는 않다 보니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 보여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걸릴 수 있다. 아울러,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야생 코끼리들이 간혹 도로를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버스

현지 버스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스톱 벨을 눌러도 간혹 서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택시

현지 출장 비즈니스맨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호텔 택시와 콜택시이다. 호텔에서 출발할 경우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나 요금이 일반 콜택시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콜택시를 부를 경우 약 10~15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참고로, 현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콜택시 App은 Pick Me이다. 요금은 미터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흥정은 필요 없다. 참고로, 모든 콜택시는 전화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다는 것은 툭툭(삼륜차)이 아닐 바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지 사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동 거리가 가까운 경우 툭툭(Three-wheeler, Tuk Tuk)이라 불리는 삼륜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그러나 에어컨 없는 오픈카이기 때문에 매연을 그대로 마셔야 하며, 교통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단거리나 경험 삼아 한두 번 타는 것 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삼륜차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는 통상 요금의 두 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다반사이며, 무작정 타면 오히려 택시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타기 전에 반드시 미터기가 달린 택시인지 확인을 하고 타야 한다. 미터기는 기본 가격은 60루피에 1km당 50루피씩 오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외국인을 태우는 경우 미터기가 고장 났다며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km당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 출장이나 차가 현지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렌터카 이용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공항에서 콜롬보까지는 공항 택시(약 20~25달러 수준) 또는 사전에 체류할 호텔에 요청해 호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택시가 더 쾌적한 편이다.

이외에 시외버스 및 철도도 있으나 철도는 배차간격이 길고 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버스는 도시 간 직행인 인터시티 버스 외에는 냉방이 돼 있지 않은데다 극심한 혼잡, 치안 등의 문제로 외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다. 통신

핸드폰

스리랑카에는 5개의 이동통신 회사가 경쟁 중이다. 이동통신 가입이 쉬우며 가격도 저렴하다. 입국 시 공항에서도 단기 대여가 가능하다. 단기 출장일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화기를 로밍해 오면 이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내 통신사(Dialog, Mobitel 등)에서 선불제 SIM 카드를 150루피(약 1,000원)에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고 한국으로의 전화요금은 분당 약 22루피(약 150원)이다. 데이터 요금은 GB별로 다른데, 요즘은 카카오톡/ 왓츠앱 등 메신저로 통화할 수 있다 보니 선불 SIM 카드를 구매하여 선불 데이터를 충전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5GB 데이터 요금은 약 4,400원). 장기 출장의 경우엔 5,000루피(약 3만 4천 원) 이하의 저렴한 전화기도 현지에서 판매하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로밍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은 4G를 주로 사용하지만, 5G역시 상용화 되어있다. 평상시 이용하는 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같은 빠른 속도를 기대해선 안 된다. 콜롬보 시내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우에도 도시 인근 지역이라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아주 큰 불편함은 없다.

라. 관광명소

◦ 누와라엘리야(Nuwara Eliya)

도시명	누와라엘리아
주소	Nuwara Eliya, Sri Lanka
명소소개	콜롬보에서 180km 떨어진 스리랑카 차 재배지 중심지역으로서, 해발 1,889m로 연중 쾌적한 날씨와 함께 광활한 차 재배지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 시기리야(Sigiriya)

도시명	시기리야
주소	Sigiriya, Sri Lanka
명소소개	폴로나루와에서 약 6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바위로 만든 요새이다. 5세기에 Kashyapa 왕이 이곳에서 요새화된 궁전을 세운 것의 잔해이며, 바위 벽에 새긴 미녀도(프레스코)가 유명하다.

◦ 캔디(Kandy)

도시명	캔디
주소	Kandy, Sri Lanka
명소소개	콜롬보에서 116km 떨어진 중부 고산지대에서 위치한 싱할라족 왕조의 마지막 수도이다. Dalada Maligawa에 부처의 치아사리가 보존돼 있으며, Peradeniya 왕국 식물원이 유명하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Mango Tree(Mango Tree)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762 0620
주소	82, Dharmapala Mw. Colombo 3
가격	1인당 대략 10달러면 식사와 디저트까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
비고	콜롬보 시내에 소재한 깨끗하고 적절한 가격대의 인도식당이다.

◦ Long Feng(Long Feng)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254 4200
주소	155, Sir C.A. Gardiner Mawatha, Colombo 2
가격	1인당 대략 20 달러 선

소개	스리랑카의 대표 호텔체인망인 Cinnamon Lake Side에서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이다.
----	---

◦ 차이니즈 드래곤 카페(Chinese Dragon Cafe)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780 8080
주소	콜롬보 시내에 2곳, 콜롬보 근처에 4곳의 식당이 있는 체인점
가격	1인당 대략 10달러면 식사와 디저트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
소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달 주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비고	중국 음식점이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한국식당

◦ 한국관(Hangugkwan)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258 7961
주소	25, Havelock Rd, Colombo 5
가격	1인당 10달러 미만으로 대부분의 식사 메뉴를 먹을 수 있다.
소개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한국 음식점이다.

◦ 경복궁(Kyungbokgung)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533 4222
주소	316, Galle Rd, Colombo 3
소개	콜롬보 시내의 줄리아나 호텔 내에 소재한 한국 음식점 이다.

◦ 강식당(Seoul House)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269 7216
주소	28/1, Horton Place, Colombo 7
소개	외국인 지역인 Colombo 7에 소재한 한국음식점이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시나몬레드(Cinnamon Red)

도시명	Colombo
주소	59 Ananda Coomaraswamy Mawatha, Colombo 3, Kollupitiya
전화번호	+94 11 214 5145
홈페이지	http://www.cinnamonhotels.com/en/cinnamonredcolombo/
숙박료	약 120달러(조식, 세금 포함)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현대식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위치도 콜롬보 시내 중심지에 소재해 있다.

○ 시나몬그랜드호텔(Cinnamon Grand Hotel)

도시명	Colombo
주소	77, Galle Road, Colombo 3
전화번호	+94 11 243 7437
홈페이지	http://www.cinnamonhotels.com
숙박료	약 195달러 수준(조식, 세금 포함)
소개	시내 중심가에 소재해 있고, 현대식 몰(mall), 대형 슈퍼마켓(Keells), 고급아파트와 연계되어 있다.

○ 킹스베리호텔(Kingsbury Hotel)

도시명	Colombo
주소	48, Janadhipathi Mawatha, Colombo 1
전화번호	+94 11 242 1221
홈페이지	http://www.thekingsburyhotel.com
숙박료	약 175달러 수준(조식, 세금 미포함)
소개	콜롬보의 랜드마크인 트윈타워에 인접해 있으며, 인도양 바닷가 바로 앞에 소재해 있다. 가장 최근에 건축되어 시설이 양호하다.

○ 골페이스호텔(Galle Face Hotel)

도시명	Colombo 3
주소	2 Galle Road, Colombo 3

전화번호	+94 11 254 1072
홈페이지	http://www.gallefacehotel.com
숙박료	약 188달러 수준(조식, 세금 포함)
소개	1864년 세워진 호텔로 영국 식민지 시절의 정취가 배어나는 호텔이다. 인도양과 바로 인접, 호텔 야외 카페, 레스토랑에서 바로 석양을 볼 수 있다. 구관과 신관이 있으며 신관이 다소 비싼 편이다. 2015년 하반기에 개조 공사를 마쳤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콜롬보 중심지의 경우 치안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주간 외출에 큰 문제는 없다. 지방의 경우에는 도심 혹은 관광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단독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다. 늦은 밤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신변 안전상 좋고, 외출 시 외출 장소를 알리고 갈 필요가 있다. 전기사정이 열악해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거의 설치돼 있지 않고 대로에서 약간 들어간 도로의 경우 가로등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밤에는 도보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지인들은 외국인들에게 불리하게 때를 쓰거나 현지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과격한 감정적인 집단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차량은 그대로 두고 현장을 피해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리랑카 도로사정은 폭이 좁고 대부분 편도 1차선으로 사람, 개, 자전거 및 오토바이, 삼륜차(쓰리휠러) 등이 혼재돼 사용하며, 도로변 바로 옆에 인가가 접하고 있다. 중앙도로 분리대가 없는 도로가 대부분이며 중앙선이 흰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추월 가능)인 경우가 많아 추월이 일상화돼 있으므로 초행인 지역이나 장거리 이동 시는 현지인 기사를 대동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 중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로 많은 희생자가 있었으며,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대한항공의 인천-스리랑카 콜롬보 직항 구간에 대한 운항이 2020년 10월 24일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스리랑카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부분은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삼륜차(툽툽)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고, 일반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재판을 통한 해결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도 난감한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자차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난다면 우선은 경찰에게 신고하고, 렌터카 업체 혹은 자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신고 및 사후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분실신고 및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지갑 분실의 경우

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혹시라도 경찰에서 지갑을 발견하게 되면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 현지 여건상 경찰을 통하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3) 응급 전화번호

-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 +94-11-269-9036(-8) / No 98, Dhamapala Mawatha, Colombo 7
- 스리랑카 경찰서: 119
- 외국인 전용 병원: Lanka Hospital / +94-11-553-0000 / No 578, Elvitigala Mawatha, Narahenpita, Colombo 5
- 24시간 응급실 연락처(앰불런스/화재 시): 110
- 영사콜센터: +82-2-3210-0404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4) 참고사항

콜롬보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 시 개인 응급회사인 MEDI-CALL(011-2575475)을 호출하면 앰불런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1회 당 300루피(약 3,000원)이나, 수도권과 원거리 지역은 현지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 한국처럼 119, 112 등 어느 지역에서나 호출 가능한 네트워크 응급 체계는 없다. 현지 병원 내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OPD(Outside Patient Department)를 찾아가면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또한, 현지에서 필요 의약품의 구입이 가능하나 출장자의 경우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 필수 상비약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병원 시설은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분야별로 의사들의 편차가 많고, 오진으로 시설과 달리 의외로 고생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치과, 피부과 등은 타 병원이나 전문 개인병원으로 현지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은 곳을 수소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의 진료비용은 내·외과 기준 평균 14달러 선이며, 입원 시 최저 가격은 6인실 1명 1박당 약 30달러이다.

참고로, 스리랑카 의사(특히 전문의)들은 한국처럼 한 병원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한 병원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와 함께 프리랜서 개념으로 자신을 불러주는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니거나 개인 집을 방문하여 진료하면서 추가 소득을 얻는다. 이 추가 소득이 기본 월급 대비 상당하다.

한국인이 콜롬보에서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다.

- Lanka Hospital
 - 주소: 578, Elvitigala Mawatha, Narahenpita, Colombo 5
 - Tel: 011- 4513054 5530000, 011-5430000
- Nawaloka Hospital
 - 주소: 23, Deshamanya H. K Dharmadasa Saugathodaya Mawatha, Colombo 2
 - Tel: 011- 2544444~7, 011- 2304444~56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외국인들은 주로 콜롬보(상업중심지) 시내 또는 바로 외곽에 위치해 있는 행정수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콜롬보는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상업의 중심지인 데다 각종 문화시설도 이곳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방수나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단독주택은 월 800~1,000달러, 아파트는 월 1,000~2,800달러 사이 정도면 한국인의 기준에 맞는 살만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1년간의 임차료와 1개월간의 보증금을 선불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정을 잘 설명하면 6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정도는 대개 수용한다.

아파트나 주택은 보편적으로 경비를 고용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단독가옥(House)의 경우에는 주택 주변가에 슬럼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경비원, 정원관리사 등 별도의 고용 인원이 필요하다.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해도 도난사고는 자주 있으므로, 도난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경비원 고용비용은 1개월간 200~250달러 정도이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주인)이 전액 지불한다. 계약 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 중도 혹은 해지 시 보증금 일부를 상식을 넘는 높은 하자보수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고 되돌려주거나 혹은 전혀 반환치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내국인들보다 높게 임대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집을 구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주위가 깨끗한 곳이어야 하며 파리, 모기 등이 많고 또 도마뱀이 많아 집에 방충망 및 모기장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없더라도 계약 전 집주인에게 설치를 요구하면 비용이 들어서 선뜻 해주려고 하지 않지만, 외국인으로서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 대체로 들어준다. 콜롬보 외곽지역 거주 시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인 School Time에 차가 많이 밀린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참고로, 현지에서 학교 픽업 타임은 오후 1:30으로서 이 시간대를 전후로 차량정체가 극심하므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나 사무실이 콜롬보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큰 길가에 위치한 집들은 소음과 먼지로 고생한다. 아울러, 해안가에 위치한 집들은 바닷바람에 영향을 받아 전자제품들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가구나 가전제품이 구비된 집도 많은 편이다. 특히 냉장과와 별도로 냉동고는 한국 식품을 대량으로 저장하기 위한 필수품인데,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약 전 집주인과 협상해 구입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현재 콜롬보 지역을 기준으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 있으며, 월 렌트비용이 1,000불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공실률이 꽤 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부분과 맞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다른 집을 알아보기 바란다.

전화

집 또는 오피스 전화 신청은 통신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후불제 및 선불제로 나뉘지며 패키지가 다양하다. 원하는 패키지 선정을 위해서는 통신사를 방문해 조언을 얻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

휴대폰 개설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그대로 가져와서 현지 SIM 카드로 교체 후 바로 사용 가능하다. 선불제 SIM 카드(충전식)를 이용할 시, 체류비자 또는 주거지가 없더라도 여권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후불제 SIM 카드(월 정액제)로 이용 또는 교체를 희망할 시, 주거지 확인서를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현지 주요 이동통신사로는 Dialog, Mobitel 등이 있고, 렌드라인 통신사로는 SLT(Sri Lankan Telecom) 등이 있다. 각 통신사 서비스센터를 직접 내방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면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전압/플러그

스리랑카의 전기 규격은 230~240V, 50Hz이다. 그러나 각 가정 및 사무실의 벽에 부착된 콘센트는 3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종 전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에 맞는 별도의 보조 플러그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식수

콜롬보 시내 기준,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을 식수로 마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인들로서는 권장되지는 않는다. 가능하면 식수는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 인접국들보다 물의 안전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석회질이 많은 편이어서 장기간 마시게 될 경우 건강에 좋지 않다. 참고로, 중북부 지역에는 수질이 좋지 않아 신장 질환을 겪는 환자들도 많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현지에서는 높은 관세 등으로 인해 자동차 비용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차량 임차료가 생각만큼 저렴하지는 않은데, 외국인이 현지에서 직접 운전하기에는 다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기사까지 포함된 조건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렌터카 업체에 따라서는 '기사 포함'을 기본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차량가격

Toyota Vitz 모델 기준 월 임차비가 약 8만 루피(2019년)로, 운전사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운전사를 고용하거나 운전사를 포함한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 임차차량임으로 보험비용은 렌트회사에서 지급한다.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는 Pilyandala 지역에서 운영하는 Driving Licence Center에서 운전면허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현지 운전면허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전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변환해 가져오거나 현지에서 변환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지에서 변환 신청할 경우에는 줄도 길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절차도 다소 복잡해 보이므로, 미리 서류를 잘 갖춰서 하루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아침 일찍 내방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으로는 Sampath, National Trust Bank, Hattan National Bank 등이 있다. 외국계 은행으로는 Standard Chartered Bank, HSBC Bank 등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1년 체류비자 획득 시 은행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모두 가능하나, 은행마다 조건과 운영 방침이 조금씩 다르다.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체류 비자가 찍힌 것), 주거지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주거지 확인 레터 등 본인 명의와 주소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는 서류)이다. 여권과 거주 비자를 취득하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중앙은행법에 의해 2가지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로 된 전화국 청구서 혹은 전기세 청구서

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주기도 한다.

외국인은 대부분 직불카드(Debit Card)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의 경우 은행에 따라 보증금이나 신용한도 등 제약이 있다. 일부 은행(CITI Bank 등)은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 미화계좌를 개설해 미화 예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송금은 가능하지만, 스리랑카 내에서의 지불용(Payment)으로는 사용이 안 되고 건별로 해당 은행으로부터 Bank Draft Check를 발급받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비싸지 않다. Current Account는 이자가 아주 낮으나 Saving Account는 이율이 높은 편이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Overseas School of Colombo(OSC)

도시명	Colombo
커리큘럼	IB
학비	연간 22,000 달러 선
홈페이지	http://www.osc.lk
비고	미국계 학교로서 외교관, NGO 및 해외기업 주재원 자녀들이 주로 다닌다. 외국인 교사가 많으며, 학비가 가장 비싼 편이다.

◦ Colombo International School(CIS)

도시명	Colombo
커리큘럼	A/L
학비	연간 4,700달러 선
홈페이지	http://www.cis.lk/
비고	전통이 오랜 학교이고 현지 고위층 자제들이 많이 다닌다. 스리랑카 내 동문이 가장 많으며,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한국학생에 대한 입학요건이 높지 않은 편이다.

◦ Elizabeth Moir School

도시명	Colombo
커리큘럼	A/L
학비	연간 4,700 달러 선
홈페이지	http://elizabethmoirschool.com
비고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국제 학교 중 하나

◦ The British School in Colombo

도시명	Colombo
커리큘럼	IB, A/L
학비	연간 4,700 달러 선
홈페이지	http://www.britishschool.lk/
비고	전체 학생수가 가장 많고 시설이 크고 좋다. 영국에서 직접 운영하며, 영국인 선생님을 메인교사로 두며, 영국 학제를 따른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현지학교
없음.

마. 병원

◦ Lanka Hospital

도시명	Colombo
주소	No 578, Elvitigala Mawatha, Narahenpita, Colombo 5
전화번호	+94 11 553 0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콜롬보의 대표적인 사립병원 중 하나이다.

◦ Asiri Hospital

도시명	Colombo
주소	No. 181, Kirula Road, Narahenpita, Colombo 5
전화번호	+94 11 452 33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콜롬보의 대표적인 사립병원 중 하나이다.

◦ Durdans Hospital

도시명	Colombo
주소	3 Alfred Pl, Colombo 3
전화번호	+94 11 214 0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콜롬보의 대표적인 사립병원 중 하나이다.
----	------------------------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ODEL

도시명	Colombo
주소	No. 5 Alexandra Place, Colombo 7
홈페이지	http://www.odel.lk
비고	스리랑카의 유일하면서도 대표적인 현대식 백화점이다.

○ Colombo City Centre

도시명	Colombo
주소	137 Sir James Pieris Mawatha, Colombo 2
홈페이지	http://www.colombocitycentre.lk
비고	현대식 극장(SCOPE CINEMA)과 푸드코트, 그리고 아울렛 상점 등이 있다.

○ One Galle Face

도시명	Colombo
주소	1A, 02 Centre Rd, Colombo
홈페이지	https://onegalleface.com/
비고	2019년 11월 8일에 오픈한 스리랑카에서 가장 최신 시설을 갖춘 종합 쇼핑몰(극장 - PVR Cinemas, 푸드 코트, 상점, 미용실, 체육관)이며, 샹그릴라 호텔과 연결되어 있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식품점

없음.

- 기타 편의시설

없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	----	----

Tamil Thai Pongal Day	2021-01-14	
Duruthu Full Moon Poya Day	2021-01-28	
Independence Day	2021-02-04	
Nawam Full Moon Poya Day	2021-02-26	
Mahasivarathri Day	2021-03-11	
Madin Full Moon Poya Day	2021-03-28	
Good Friday	2021-04-02	4월 출장자제 - 스리랑카의 새해는 4월 입니다.
Day prior to Sinhala &Tamil New Year Day	2021-04-13	4월 출장자제 - 스리랑카의 새해는 4월 입니다 (새해 연휴)
Sinhala &Tamil New Year Day	2021-04-14	4월 출장자제 - 스리랑카의 새해는 4월 입니다 (새해 연휴)
Bak Full Moon Poya Day	2021-04-26	4월 출장자제 - 스리랑카의 새해는 4월 입니다.
May Day	2021-05-01	
Id-UI-Fitr (Ramazan Festival Day)	2021-05-14	
Vesak Full Moon Poya Day	2021-05-26	
Day following Vesak Full Moon Poya Day	2021-05-27	
Poson Full Moon Poya Day	2021-06-24	
Id-UI-Alha (Hadji Festival Day)	2021-07-21	
Esala Full Moon Poya Day	2021-07-23	
Nikini Full Moon Poya Day	2021-08-22	
Binara Full Moon Poya Day	2021-09-20	
Milad-Un-Nabi (Holy Prophet's Birthday)	2021-10-19	
Vap Full Moon Poya Day	2021-10-20	
Deepavali Festival Day	2021-11-04	
Ill Full Moon Poya Day	2021-11-18	
Unduvap Full Moon Poya Day	2021-12-18	12월 출장 자제 - 한 해 업무 마감 및 개인휴가로 12월 중순부터 자리를 비우는 직원(과장급 이상)이 많습니다.
Christmas Day	2021-12-25	12월 출장 자제 - 한 해 업무 마감 및 개인휴가로 12월 중순부터 자리를 비우는 직원(과장급 이상)이 많습니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9. KOTRA 무역관 안내

KOTRA 콜롬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No. 59, 3rd Floor, Edward Lane, Colombo 03, Sri Lanka
- 전화: (+94) 11 259 7494
- 팩스: (+94) 11 259 1818

공항-무역관 이동

- 반나라나이케(Bandaranayake) 국제공항에서 택시로 이동한다.(버스나 지하철 없음)
- 콜롬보 시내 Kollupitiya(Colombo 3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Thummulla 교차로에서 Duplication으로 가다가 오른편 SPLASH 건물 옆길로 진입, 그 건물 옆길이 Edward Lane이고 바로 들어오면 왼쪽 2번째 건물 3층(한국식 4층)에 위치해 있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